부처님오신날 종정예하께 여쭙다



성파 스님은 지난해부터 울주 반구대암각화를 실물 크기의 나전 옻칠로 제작해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 앞 수조에 담가 선보였다. 사진은 반구대암각화 앞에 선 성파 스님.



16만 도자대장경과 장경각을 10여 년에 걸쳐 조성한 성파 스님이 도자대장경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관대할 寬' 마음 새기면 갈등 싹뚝 잘라져"

〈관〉

역기능 많은 종정 예경실 설치 안해
전통문화 보존 발전은 내 평생의 원
'平常心이 道' 은사 가르침 항상새겨
선과 예술은 하나로 일맥 상통 한다

=사실 사찰 문화에는 우리 전통 문화의 보고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전통 문화인 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통문화를 연구 복원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불교가 나라를 지키는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출가 초기부터 그런 정신으로 살았죠. 〈초발심자경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음수성독(蛇飮水成毒) 우음수성유(牛飮水成乳)'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슨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것이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는 거란 의미죠. 바로 그겁니다. 수행자에겐 옻칠 작품을 만들던 울력을 하든 그 모든 게 수행인 겁니다. 전통문화 보존 발전도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옻칠 문화를 계승할 후학 스님들이 없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나라 글인 한글을 연구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몇년 전부터 '책 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얼핏 들으면 수행하는 것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책은 인류의 지식들이 총 망라된 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등 첨단 기기들에 밀려서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책이 필요한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50만권 조금 안되게 모았는데 어느 정도 모이면 종류별로 나누고 분류해서 통도사 경내 곳곳에 서 언제든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게 남은 원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미래는 IT와 기술 문명 시대가 지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정신문화는 빈곤과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죠. 이는 약으로 절대 안 고쳐집니다. 마음을 바로 닦아 자기 본래의 참나를 찾는길 이외엔 별다른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 문명에만 의지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고저가 생겨나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럴때 독서도 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즉 책은 미래를 대비하는 비밀병기인 셈이죠. 제가 책을 많이 모아 놓으면, 그 책들을 후학들이 유용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되도록 노력할 거라 믿습니다.

△은사이신 월하 스님도 '평상심이 도(道)'라는 걸 많이 강조하셨다는데요. 은사 스님은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평소에 강조하셨는지요?

=우리 은사 스님께선 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말씀하셨어요. '평상심이 도'인데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중노릇 잘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상식이 바로 도이자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라는 경책이셨죠. 저는 무슨일을 하든지 수행자로서 평생 그 교훈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부처에서 부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생심에서 부처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범부와 부처가 둘이 아닌 이치죠. 바로 그걸 깨달으면 평상심이 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렵나요?(웃음)

△종정 스님께서는 수행자인 동시에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6만 도자대장경과 장경각을 10여 년에 걸쳐 조성하셨고, 지난해부터는 울주 반구대암각화를 실물 크기의 나전옻칠로 제작해 장경각 앞 수조에 담가 선보이셨습니다. 이렇듯 선예(禪藝) 일치의 경지를 보여주신 셈인데요. 선과 예술은 어떤 점에서 일맥 상통하는지요.

=일과 수행, 삶과 예술, 자연과 문화가 결코 둘이 아니듯 선과 예술도 역시 둘이 아닙니다. 붓을 잡는 순간, 무념무상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참선과 수행으로 마음을 비우고 맑은 기운을 그림에 배어들게 해야 하죠. 그래야만 보는 이로 하여금 맑은 기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기(禪氣)가 없는 불화(禪畵)는 선화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불교 수행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과 예술은 일맥 상통한 것이죠.

수행자가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무념과 무아, 즉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림 속에 나를 투영해 나를 잊는 만큼 그림을 통해 무념과 무아가 드러나기 때문에 붓을 잡는 것 자체가 수행인 동시에 포교인 것입니다.

△대선 후 정치적 갈등이 더욱더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을 봉합시키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 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갈등을 넘어섰습니다. 넓은 마음이 극복하신 비결이죠. '소선난감중재(小船難堪重載)'라는 말처럼 작는 배로는 무거운 짐을 못싣고 다닙니다. 호연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사실 누구와 시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안 맞을 땐 부딪히고 싸울 일도 많았지만 전 안 싸웠어요. 때론 좀 비겁해 보일수도 있겠지만, 부딪히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게 더 힘들지 참는 건 오히려 힘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통도사 주지 시절 오해로 저를 몰아내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비결은 관대할 관(寬) 글자를 마음에 깊이 새겼기 때문이죠. 그거 하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는 물론 타인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해 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요 수행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타인과의 갈등에 봉착할때마다 그 산을 넘는 비결인 '관대할 관' 글자를 마음에 되뇌이세요. 그러면 행복의 미소가 절로 쏟아져 나옵니다. (웃음)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성파 스님은 193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20대 초반에 통도사에서 출가했다.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5학년때 6.25전쟁이 터졌다.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게 되자 서당에서 명심보감과 사서삼경 등의 한학을 공부했다. 그러다 마음의 실체가 궁금해 1960년 통도사로 출가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월하 스님(1915~2003)이 은사다. 1970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1971년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1975년 경북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첫 안거에 든 이래 26안거를 선방에서 지냈다.

통도사 주지, 제5와 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교무부장과 사회부장을 역임했다. 2013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됐으며, 2014년에는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았다. 성파 스님은 전통 옻칠을 개발해 한국의 전통 민화를 되살렸다. 고려와 조선의 모든 불화를 옻칠로 제작했다. 장장 10년에 걸쳐 650t에 달하는 도자기를 구워서 팔만대장경판을 만들었다. 이는 현재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 모셔놓았다. 또한 2018년부터는 영축총림 방장으로서 총림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 3월 26일에는 조계종 제 15대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임기는 5년이다.

KOMSCO 한국조폐공사

부처님 오신날 기념 국보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메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22년 5월 4일 출시



국보 78호
삼국시대, 금속(금동)
높이 81.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 금메달



판매가격 : 2,640,000원
순금(Au999) / 20g / 154X68mm / UNC급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 은메달



판매가격 : 110,000원
순은(Ag999) / 10g / 154X68mm / UNC급

2022년 7월 중 출시



국보 83호
삼국시대, 금속(금동)
높이 90.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선착순 예약접수> 5.9.(월)-5.27.(금), 21일간
※ 배송 · 교부 : 8.29.(월) - 9.2.(금)

온라인 판매 : KOMSCO 한국조폐공사, POONGSAN 희동양행, Hmall THE HYUNDAI.COM, LOTTE ON 롯데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 KOMSCO ORODT & DIYUM
협력 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제조 및 판매 주관 : KOMSCO 한국조폐공사 www.koreamint.com 문의: 1577 - 4321

KOMSCO ORODT & DIYUM 한국조폐공사 오롯·디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66 (6호선 광흥창역 5번 출구 / 주차 가능)